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인양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 이태복

달고요만한 말씀(공요집화) - 천국 복음

-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 제2장. 장래에 입할 천국
-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 제4장. 천국의 비밀
- 제5장. 천국의 생명

제6장 천국의 의 (3)

할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도 위의 말씀을 묻자 그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소. 대제 사장의 하속 중 하나인 바나사의 딸을 찾은 바, 예수님은 다른 쪽 뺨을 돌려대지 않고 시고, 때면 사람에게 항의하셨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하라 잘못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요 18:23b). 그렇다면 위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물론 위의 말씀을 묻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를 위하여 입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마 5:10)라는 말씀처럼, 예수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의 말씀을 묻자 그대로 실천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위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마음의 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로움이다. 이러한 의는 자신에게 마땅히 돌아올 권리마저 주장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보복이나 복수 같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완전한 자들을 위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방이나 정당한 복수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위하여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자신을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 44).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항상 사랑에 그 동기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완전한 해방을 찾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느꼈나니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수한 관심이다(히 12:6).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고전 13:4).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보복이나 이기적인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순수

한 관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의 극치는 용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은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내가 갚아 하노리이까"(마 18:21b)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말씀하셨다. 일흔 번에 일곱 번이면 490회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기를 490회 했다고 가정해 보자.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찬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예수님은 땅간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용서의 특성을 알려주셨다(마 18:23-35). 어떤 임금에게 일한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것이 전혀 없자 임금은 그 종을 붙잡혀 여러 빚을 땅강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나 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빚 갚기를 독촉하였고, 갚을 것이 없다고 하자 종의 목이 거두어 버렸다. 이에 임금은 일한 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불러 회회해 책망하고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말씀하셨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라 내가 천부째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마 18:35).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이 베푸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선적인 용서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선적인 용서가 동기가 되어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의인 것이다. 완벽한 선결, 완벽한 정직, 완벽한 사랑과 용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 천국에서 요구하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통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지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장래 입할 새 대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현재 맛볼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처럼, 장래에 입할 하나님 나라의 의도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이다.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기대하며...

지난주일 공동의회, 열 분의 장로 선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제37대 장로 열 분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총무 표수 1845표 중에서 유효표는 1833표, 무효표는 1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표수로 계산하면 최소 1222표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열명 전원을 찬성할 표가 투표수 3분의 2를 웃도는 1449표로 집계되었고, 후보자 개개인에게 찬성표를 던진 나머지 유효표까지 더하면 후보자 열 명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최다득표자가 1687표를 얻었는데 개인 최소득표자 역시 그에 얼마 차이하지 않는 1585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목회와 행장을 분리하여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예수 두 분의 사무 장로님들은 행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 지날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신령한 복을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철저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장로님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지난 봄에는 네 분의 장로님을 먼저 선출하고 이번에는 열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의 신령한 일들을 살펴볼 장로님들이 더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는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준비될 때마다 일꾼들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 37대 피택장로 명단 -연령순)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김형근 장승규 전준배 석영식 구재환 송두성

"신앙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할 추석 명절

명절이 되면 즐겁기도 하지만 힘든 일도 많다. 음식 준비도 평소보다 많은 일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고, 연휴라서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기도 쉬우며,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추석 명절을 계획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락을 누리는데 마음을 쏟도록 하자(롬 14:17 참조).

명절이 쉬어서는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경건생활에 힘쓰고 가족단위로 모여서 경건한 대화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나누어야 한다. 혹 믿지 않는 가정에서 속한 성도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수록 형제들과 친지들에 새 사랑으로 다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절개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은혜를 기억하며 단단히 나아가지(고 2:20) 조호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로 드러지기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 - 본지 7면)

LET US DRAW NEAR TO GOD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having our hearts sprinkled to cleanse us from a guilty conscience and having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Hebrews 10:22)

This one Bible verse provides us with the most wonderful information. We can now know God; really know Him. We can commune and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have His presence and power operating in our life. In His presence and power, we can overcome all trials and temptations, conquer all problems, and defeat all enemies, including the last great enemy, death. The Living God can be a living reality in our lives.

We can have this kind of new life; we can go to God because Jesus Christ opened the way. He took our sins and paid their price. He freed us from bondage, so that He could freely give us eternal life. We can relate to a perfect God, a righteous God, without sin because Jesus cleanses sinners. He makes them righteous, so that they can go to the holiest of holy place. He gives them access to God,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our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Eph. 2:18). No longer do we have to be strangers, but we can be members of God’s household (see Eph. 2:19). We can have a deep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As we walk day by day, His presence and power can be a part of our lives. Therefore, let us draw near to God, but before we do it’s today’s Bible verse tells us that how we approach God is very important. We need to come close to Him in a particular way. Certain preparations are necessary in order to be with God. Upon entering the most holy place in the Tabernacle/Temple, remember how man of the high priests in the Old Testament died because of their poor preparations. Drawing near to God is serious business. We need to know what is necessary for us to enter into His presence and power.

Drawing near to God requires a sincere heart. This means our intentions must be true, honest, genuine, meaningful, and without hypocrisy. A sincere heart has an attitude of gladness, freedom, and enthusiasm. In other words, a person is thankful and appreciative, glad and joyful, and feels free to enter God’s presence. A person is wholehearted about being near God. There is no insincerity or dishonesty. A true heart knows what Jesus has done because He has greatly affected his or her life. The meaning of Jesus Christ makes a true heart know that he or she can really draw near to God. Those with such a heart can commune and have fellowship with Him. They know that they can walk in praise and thanksgiving of God all day. They know they can have the presence and power of God looking after and caring for them all day, everyday. God will deliver them from all temptations and trials. He will also give them victory and triumph over all earthly things. A true heart knows what it is to draw near to God and to live in unbroken fellowship with Him.

All too often, the temporary sparkles of earthly life detract us so that we forget to draw near to God. Television, movies, dining, fashion, riches, and all sorts of constant noises try to harden our hearts. We need a sincere heart before we draw near to God. In the Bible we read about so, so few who actually had sincere hearts. We must awaken and heed to our duty. It is necessary for us to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true, and genuinely honest heart.

When we draw near to God we must have the full assurance of faith.

Full assurance means we understand that Christ only is qualified, and we totally are unqualified. If you think that full assurance of faith means you are qualified because you are a good person, doer of good works, and belong to and always attend church, you are dead wrong. If you think that full assurance of faith comes from baptism, never doing anything considerably bad, always having a heart for God, or willingness to continually sacrifice, again you are dead wrong. Many churches teach that living a respectful life and doing valuable deeds gives one full assurance, but this is not biblical. Full assurance in Christ comes when you deny yourself and ask Jesus to make you His instrument. He is the one person who can and does give us access into God’s presence. Christ alone makes us acceptable to God. Seriously, if you think you are qualified to have full assurance, you do not have it and cannot get it. You must know that you are unqualified because Jesus Christ is the only perfect sacrifice. His sacrificial death is the only sacrifice that God accepts. When we approach God we must have full assurance of faith in Jesus Christ,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obtained our introduction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we exult in hope of the glory of God”(Rom. 5:1-2). Only Jesus brings us into God’s presence and power, “in whom we have boldness and confident access through faith in Him”(Eph. 3:12).

In drawing near to God we must have our hearts and bodies perfectly cleansed and washed. This is a clear picture of what the high priests in the Old Testament did before entering the holy of holies place. They had to sprinkle themselves with the blood of special animal sacrifices, and wash themselves. These actions symbolized the cleansing of their sins. This helps us to know that we too must have our sins and guilty consciences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We have to approach God through Jesus Christ. Jesus says, “I am the door; if anyone comes through Me, he will be saved, and wi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Jn. 10:9). He is the perfect sacrifice for our sins. He alone has made the perfect sacrifice for our sins. Therefore, the only way to cleanse our sin is to trust in Jesus Christ. If we really trust His sacrifice, then God accepts His sacrifice for us. With Jesus, we can draw near to God, completely cleansed, mind and body, from all sin.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Cleanse your hands, you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Jam. 4:8).

My dear friends, what an exciting and strong message we receive from today’s Bible verse. When dignitaries come before earthly kings and presidents, they groom themselves impeccably. They have the best haircuts, wear the best clothes, and use their best speech. They come with their best attitudes. These mere humans are flawed, yet to stand before them we take great preparations. We have the greatest honor to draw near to a perfect God. Jesus Christ gives us this access, this incredible privilege.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by making sure that we have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and the pure cleansing of our minds and bodies from sin as we draw near to God..

다음 주일 설교

다음 주일 설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김성관 목사

오늘의 본문은 비탄과 절망의 어귀에는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것입니다. 정말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과 능력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힘입어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모든 환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람을 얻고 영원히 사망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애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자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고통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고 지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엡 2:19 참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격적이고 값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합동과 노력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뻐 나아갈수록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기가 매우 중요하고 महती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하기가 아니라 할 때는 정해진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대로 꼭 필요합니다. 순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간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기가 아니라 것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참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먼저 '참 마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거기가 없어야 합니다. 속에서도 우나니라고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디라. 마음이 참되면 기쁘고 자아를 잃어 영원히 태도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감사하고 기쁘며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거기가니 우선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만 생각해도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능력이 나타나 순간마다 그들을 지켜주고 돌보아 주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들을 모든 시련과 유혹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언제나 온 것은 우리 참심자입니다. 사랑질이 세상 생물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부단히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된, 영화, 의식, 유해, 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 마음을 있어야 합니다. 그러도 성령은 계로 마음을 청정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참되게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오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선 행을 하고 있는대로 교도도 잘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세례를 받았고 어떤 기간 일한 것을 잊어도 항상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회개할 만능의 존비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삶으로 삼고 훌륭한 행동을 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의 일대 만으로 들어갈 자격과 담력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죽음만이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게 하여나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온전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셨습니까 우리 주께서 가라미지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1-2).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화평에 당하게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

정결합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깨끗해 되고 '정결'에 도달해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행동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특정한 희생 제물을 그 죄를 몸여 뿌려야 했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누구든지 내게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그는 들어가면 나로써 그를 얻으리라"(요 10:9).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한 가지 성서적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열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마음을 순치게 하라"(약 4:8).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지요? 고위 인사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 앞에서 세력 뽐낼 때,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칭찬을 받습니다. 머리카락이 몇몇개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최대한 품위 있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몸가짐을 합니다. 임금이나 대통령이어서 무리 노리듯 결국은 그들이 받은 사람에게 불려와서 뽐냅니다. 그런 것을 앞에서 서서 나누는 정성스런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의존한 온전한 확신 속에서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극히 본에게서 거룩해 되도록 주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바르게 하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1**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 22:41-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심각하게 던진 질문이다. 오늘 우리 각 사람도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목표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섬기고 있는가? 신앙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 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본디오 빌라도 - 그는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살하였도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 (눅 23:14). 그는 제사장들이 구약의 예언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치면서도 알지 못했던 진리를 금방 깨달았다(막 15:10). 물론 빌라도에게도 한계는 있었다.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서는 겁에 질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마 27:24).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주주이신가?

빌라도의 아내 - 빌라도의 아내 역시 예수님이 의로운 자임을 고백하였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통을 많이 썼나이다"(마 27:19b).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롯 유다 -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였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마 27:4).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가롯 유다! 비록 늦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의인임을 깨달았다.

백부장 - 십자가 사형을 진두지휘하며 집행했던 잔인한 로마 군인!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입과 마디 외침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면서 고백하였다.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도다"(눅 23:47b).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아닌가!

귀신 들린 자 - 거사사 광인은 주님의 설교를 들은후 적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러나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저희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나"(막 5:7, 눅 8:28).

소경들 -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소경들! 그들 역시 눈이 멀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들은 소문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마 9:27, 마 20:30).

바울 -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줄 알고 살기동충하게 살았던 바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행 9:5),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다(딤후 1:6,15). 그러나 후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 자존심, 성공, 명예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안드레 - 형제 시몬을 전도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소개하였다(요 1:41).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세례 요한 -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다. 그는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요 3:30).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34).

사도 요한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사도 요한의 이 증거를 참으로 믿는가? 생명과 은혜와 평강은 돈의 많음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믿는가? (골 1:5)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을 믿는가? 심판의 날에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가(계 19:11,13,16)?

베드로 - "시몬 베드로가 대방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신가?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벧전 5:4)?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 -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שראל의 임금'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요 1:45,49, 20:28).

예수님의 형제들 -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고백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약 1:1). '형장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약 2:1, 유 1:4,25)!

우리는? -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후시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내 명예, 내 복음, 내 생장, 내 계획에 집착하는 우리는 아닌가? 회개하며 온성을 구하자. '오, 주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권사칼럼

'주여!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왕유빈
(권사회 회계)

10년 만에 찾아온 올 여름 무더위로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아찔져 너코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결실의 계절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풍성한 가을철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지난 세월을 차분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하고 허를 많은 이 평인을 예수님께서 고귀하신 보혈로 구원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셨으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침하고 무한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애 바쳐서 충성하라"(찬송가 378장). 저로 하여금 이렇게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소명을 받고 권사회에 들어온 지도 이연 2년이 되어 갑니다. 회장을 비롯하여 내 분의 지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바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벧 2:2-5)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본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권사회 회계로 봉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사업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사람들을 흔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라 하시니라"(고후 9:8)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어머니로 새워 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케하시 해마다 연초에 자원하여 회비를 작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이웃 사랑을 위하여 지금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실, 저희 권사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들란에서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던 어린아이처럼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물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후시 실수하지는 않을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여,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평생 생소니 이것뿐 주의 이름과 이름이 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찬송가 376장). 이 찬송사가 저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찬송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도구로 써주신 은혜

먼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의의 도구를 사용하신다.

나는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빨리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하지만 기도로서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점점 그 두려움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려주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였다. 겸손하게 나를 더 낮추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정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묻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말 대 물줄기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한번 체험하게 하였다.

나는 평소에도 선교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선교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복을 위해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고 싶다.



강혜권(등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견과 오랫동안 뿌리박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부터 교육받고 생활하던 사고와 종교관을 인연도 통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대 며칠동안 복음을 전한다고해서 그들이 과연 받아들이일까?' 라는 회의가 들었고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듯 무모한 일이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순간 들곤하였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에 임했을 때 이번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동안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매일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팀원들의 마음에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셨다.

선교 들었을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매우 급격하고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다. 종교행사의 하나로 20살도 되지 않아 보이는 청년들이 양쪽 볼에 뚝구멍을 뚫어 두어터 정도되는 절간을 양쪽으로 관통한 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에 많은 물통이 쇠갈고리를 끼워서 짐장처럼 끌고 청년들이 수도없이 줄을 지어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고 다음 생애의 더 나은 환경을 소망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매우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고행과 수련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일까요? 우리가 한 선교사의 인구는 10억 2천만인 기독교인은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99%의 영혼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요? 갑자기 그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비가 억수로 내리도록 개지지 않고, 해가 뜨겁게 내리쳐는 날에도 힘을 다해,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 이르는 길임을 증거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셨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입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야 구주 이십니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성로를 통해 늘 들었던 내가 죽어야 팀이 살까 내가 부인되고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다. 일꾼으로 불러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윤숙희 (집사, 12교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나셨던 선교

정년이 지나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들에게 불현듯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라는 찬송을 부르며 우리 은퇴장로들은 다시 한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복음을) 전하"고 뜻을 모으고,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7박 8일간의 단교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들도 다른 선교회와 똑같이 2주간의 CMTC 교육을 거쳤으며, 4월부터 매주 받은 언어훈련은 어린이아마냥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번 이상의 기도 모임 중, 2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면서, 집중적이고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선교사역의 완수를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들보다 먼저 선교지에 다니는 다른 팀들로부터 사전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착실하게 준비를 쌓아 왔지만, 그래도 역시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팀 구성에서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최연소 만70세부터 80세까지이니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기간 중 한 사람의 환자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지요 모두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훈련의 부족이었습니다. 4개월정도 언어 훈련을 쌓아서 현지어로 겨우 1, 2개의 찬송가를 외워서 부를 만큼 되었는데 불과 한달도 안 남은 시기에 갑작스럽게 선교지를 바꾸게 되어 몹시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기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변경된 사역지에 가서 그곳 원주민 앞에서 다같이 찬송가 411장을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현지사정입니다. 10월까지는 우리가 하여 우의는 물론 우산도 준비하였으나, 더위만 극심하였던 한 한반도 비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칠날인 화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때 우리 같은 비가 쏟아져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분을 맛보았으며, 현지 사역을 다 마친 다음주 필요일 저녁, 다시금 억수 같은 비를 내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기쁨(눈물)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는 은혜를 새삼 느끼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수많은 영혼들, 축조전도할 때 많으라고 권하며 냉수를 대접해 주던 순박하고 깨끗지 않은 심령들, 영어를 조금 안다면서 자기이름과 나이를 대가며 전도자를 따져 물어 내리치는 갑박한 심령들,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60명씩, 70명씩 되는 무리 앞에서 현지인 통역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장로들을 초종교한 눈망울로 바라보던 순수한 어린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음을 환탄한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월 전에 현지에서 파송된 2명의 자매 선교사와, 우리와 같은 항공편으로 추가 파송된 또다른 2명의 대학생 선교사들이 시종 우리와 함께 선교에 동행해 줌으로써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여겨져 기쁩니다. 이들을 현지에 남겨두고 내리오자니, 이런 자식을 멀리 이국땅에 떼어 놓고 오는 부모의 심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들 자매 선교사를 위한 교회 차원의 기도와 지원을 이 자리를 통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선교사역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심이었으며, 중현의 은 성도의 기도와 격려의 결과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은퇴장로 자신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았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한 선교여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한창(은퇴장로)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9월 13일(목)-9월 21일(화)	12교구 추가	원용철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정도와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침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창 4:3)

◆ 현재 시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3일(목)-10월 1일(목)	청년1부7	강창형	9월 24일(금)-10월 2일(목)	5교구 8구역	양기수
9월 24일(금)-10월 1일(목)	2교구 추가	박용규	9월 24일(금)-10월 1일(목)	청년1부8	이계인
9월 24일(금)-10월 2일(목)	5교구 1구역	이지은			

전국교회

겸손한 자의 편지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이 아프셨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랑 놀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에는 예수님도 있고 또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아픈 것도 없으니까요. 내가 수술 할 때 '예수님 만났어 애중씨요'라고 어머니랑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수술 잘 하고 집으로 빨리 와라'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 주세요. 내가 처음에는 찬양대가 아니었는데 어머니께 하고 싶다고 말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찬양대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 다 찬양대에서 좋아요. 예수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찬양대를 하니까 찬송가를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아랑 사이좋게 지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잊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재원 (유지훈)

희개의 고백

부끄러운 선교였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나태해서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니다. 솔직히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선교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기대도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못해서 출발 당일에도 선교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니다.

현지에서 처음 노방전도를 시작했을 때 현지인들을 보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니다. 언어도 부족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또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들이 하였습니니다.

머칠이 지난 후, 선교지에 온 목적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잘 하려고 했지만 어찌나 잘 안 되고 마음이 제기가 안 되던지 나의 모습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의 분회기도 안 좋아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밝고 명랑했고 저희들을 잘 맞아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는 시간마다 부족한 언어와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연습한 결과 그나마 그 영혼들에게 잘 전달 수 있었습니니다. 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을 써주셨구나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직 복음만 들고 오직 성령충만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텐데 아직도 많이 미성숙하고 부족한 고등학생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도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데로 따라가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저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한한 사랑으로 피 흘려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용성(고등부)

지나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야?"

모세가 자신의 연약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니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를 통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큰 힘을 발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과연 내 손에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야?' 과연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는 중에서도, 수요일에 금요일까지 참여하는 중에서도, 청년부 기도회에 있는 중에서도, 집에 돌아와 잠에 들면서도 계속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이제엔

세상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도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이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7-8).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지만 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런 것으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것은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사회성에 있어서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즐기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제 마음은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롬 5:21a). 저 역시 사망 안에서 군주처럼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엔

심각합니다. 방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님은 제가 있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그분 안으로 돌아온 후로는 한쪽 마음이 항상 공허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연약한 자를 찾아주셨고 능력 없는 제가 일원과 팀장과 조장의 모습으로 지체들을 섬기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르도도 드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은혜입니다. 제가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소망을 둔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절속치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내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라" (롬 5:3-4).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면 제게 요즘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b). '내 십자가를 지도록 하라.' 자기부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그냥 내게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인도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날을... '길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라' (롬 11:33).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담고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봅니다.



박원 (청년1부)

추석 가정예배 모범

- ◆ 찬 송 460장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성경교육 창세기 12:1-3 다 같 이
 ◆ 말씀선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자 인 도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자 (설교문)

1.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1절). 당시만 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땅을 보여주지도 않았었다. 단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겠는가? 그렇다, 사람들이 흔히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는 돈과 명예, 지식과 권력, 교육과 기술 등에 대한 집착과 사랑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으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믿음으로 한걸음씩 걸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는가?

2.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물론 그는 자신이 내딛는 믿음의 길이 시험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미쳤다고 나무라며 현재 사는 곳에 머물라고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에 가득한 온갖 반대 요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람들의 유혹을 무시한 채,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도 진실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히 11:6).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누린 축복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올 한 해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는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날로 삼도록 하자.

3. 성취된 약속과 축복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믿음으로 따르지만 하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신다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약속하셨다(2절).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4:18-19). 이뿐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더 놀라운 약속도 주셨는데 그 약속도 성취되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3절).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자손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원천이 되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에게 연결되어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4.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더불어 즉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9,10).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된다(요 3:16).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 인간적인 욕망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직 그분만 섬기고 믿음으로 그분만 따르자.

- ◆ 기 도 인 도 자
 ◆ 찬 송 357장 다 같 이
 ◆ 주기도문 다 같 이

다움 주일 찬송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다움 주일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작사자 버펄(H. Buffum 1879-1939) 목사는 17세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한 소년 목사였으며 그때부터 영감을 받아 찬송을 썼다. 그는 나그네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작시, 작곡하며 일생을 마쳤는데 그가 만든 유명한 찬송가가 많으나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것은 그의 신앙의 대표적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찬송가뿐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하고 있다. 찬송시 하나 하나가 그의 신앙의 확신과 간증이다. 이러한 작사자의 마음과 같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그리스도께서 가장 주님의 길에 돌보시는 것은 가장 연약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는 연약하고 늘 이기적이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양떼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하셨던지요? 무릎을 꿇으며 어린이들을 시켜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셨던 바닷은(막 16:7).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어린이들 그 따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사 40:11b)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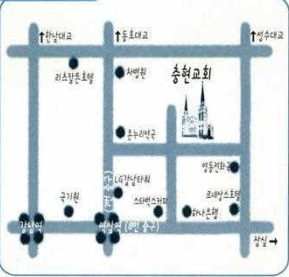
만약 잘도와서 거저가는 심심함에서

새·가·목·을·형·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00	김아람	19	청년1부	한세화(19)	2607	김진영	19	중등2부	양재홍(11)
2501	이창화	6	청년1부	유동호(3)	2608	오상만	15	청년2부	이경현(11)
2502	홍혜화	5	소말부	홍성순(5)	2609	김정환	3	청년2부	
2503	이지영	14	청년2부	권형림(19)	2610	원혜라	9	장년1부	김경진(5)
2504	한형권	19	청년2부	정종철(10)	2611	박효근	19	대학부	유영급(7)
2505	장인규	19	청년2부	박재현(18)	2612	임부순	8	청년2부	정경진(4)
2506	이영식	19	고등부	예경호(12)	2613	김지혜	19	청년1부	최병호(2)
2507	이혜진	19	대학부	유복삼(2)	2614	박연숙	13	청년2부	김단용(14)
2508	정관희	19	청년1부	이계인(2)	2615	김현옥	12	청년2부	유병열(12)
2509	가경환	9	고등부	최종순(3)	2616	최경승	5	장년3부	
2600	홍승우	19	청년1부	한만규(18)	2617	김영중	5	장년3부	
2601	김효진	12	청년2부	윤희순(9)	2618	김현정	9	장년2부	박영순(9)
2602	김영진	19	청년1부	최홍심(15)	2619	임성자	9	장년1부	김소진(9)
2603	김정장	13	청년2부	윤희순(9)	2620	정우진	19	청년2부	이윤자(8)
2604	유윤숙	16	청년2부	한동열(16)	2621	양성훈	19	청년1부	
2605	이진숙	13	청년1부	권요숙(13)	2622	이향배	14	청년2부	이혁(14)
2606	캄규	19	외신부		2623	정운미	19	고등부	

※ 중헌교회의 한 가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목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

- ① 위임직무담당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통치하여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봉로가 되게 하십시오.
- ② 영인 전배부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언제든 밝히 담하게 드러나되게 하십시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전국복음을 확산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 ③ 총현회와의 단거전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 ④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단거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 ⑤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 ⑥ 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양양성부, 전인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부지역장 영성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하며 전하는 천국임공부가 많이 성장하게 하십시오.



섬 · 기 · 는 · 본 · 들

사 김성관